GLOBAL
MARKET
STRATEGY

2024. 4. 22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trategist
juhn21@samsung.com

삼성증권

미중 분쟁 업데이트

바이든 고관세, 미중 분쟁 escalation 구간

- 바이든의 고관세 예고: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 향후 전망: 미국 대선 국면, 미중 분쟁 강도 점진적인 escalation 예상
- 현안 점검: **미중 분쟁 구조화,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 진행 중**

바이든 철강 고관세 발표: 높아지는 미중 분쟁 파고

- 미중 분쟁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였다. **4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를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중 분쟁 강도는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히 ① 미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②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패권에 대한 안보(군사/기술/에너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중국을 지경학적 영토에서 고립시키는 "진영화"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미중 분쟁은 경제적 영토(고관세, 첨단 제조)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인데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홍콩/대만/남중국해)와 글로벌 공급 구조 재편 과정의 긴장 관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내부 경기 둔화 위험과 더불어 대외 미중 분쟁의 파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게 되었다.

현안 점검: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

- 미중 분쟁의 구조화는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한 대중국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산업 분권 구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현재 무역(고관세)과 미래 무역(첨단기술) 견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 수출입 국가와 품목을 통해 관찰되는 변화는 (1) 신흥 경제 블록 강화, (2) 첨단 제조 경쟁 심화, (3) 공급 과잉 구조 확대에 있다.

  무역 분쟁('18년)과 코로나 팬데믹('20년)은 무역 구조 재편의 촉매제가 되었다. **중국의 선진국 수출 비중은 2010년 51.6%에서 지난해 41.1%로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아세안/BRICs/중동, 아프리카, 남미) 수출 비중은 27.6%에서 41.3%로 급상승하였다.**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e) 정책과 중국의 신흥 시장 진출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의 공급 사슬과 신흥 경제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 반도체를 대표로 하는 첨단 제조 부문은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핵심기술 동맹(진영화)을 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대외 정책(중동/아프리카-아세안-유럽-남미)과 시장 개방/경제 협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거국적인 인적 자원과 자본을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입하는 자립자강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첨단 제조 부문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바이든, 중국 산 철강 고관세 부과 발표

미중 분쟁 재점화

- 미중 분쟁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였다.

4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를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23.11.15일) 이후 전략적인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미중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 리오프닝 정책 시행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중국 협상 채널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미 정책 협상과 인적 교류 확대에 나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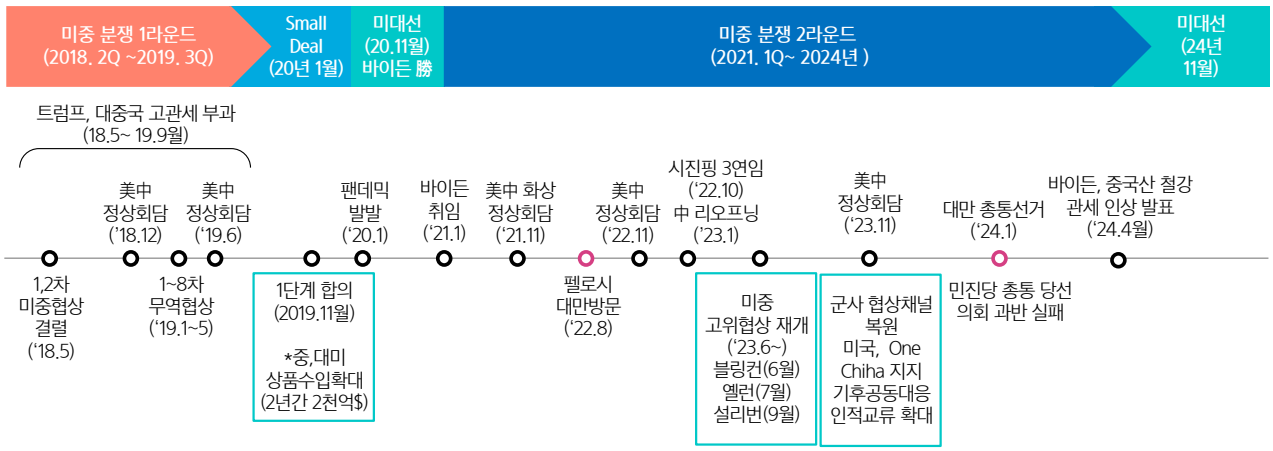
- 미중 분쟁 강도가 점차 escalation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중 갈등 구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히 ① 미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②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패권에 대한 안보(군사/기술/에너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중국을 지경학적 영토에서 고립시키는 "진영화"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곤궁하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신흥 경제 블록 강화와 개방 확대, 첨단 제조 부문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Great decoupling(대결별) 경과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미중 분쟁은 경제적 영토(고관세, 첨단 제조)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인데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홍콩/대만/남중국해)와 글로벌 공급 구조 재편 과정의 긴장 관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내부 경기 둔화 위험과 더불어 대외 미중 분쟁의 파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게 되었다.

미중협상 경과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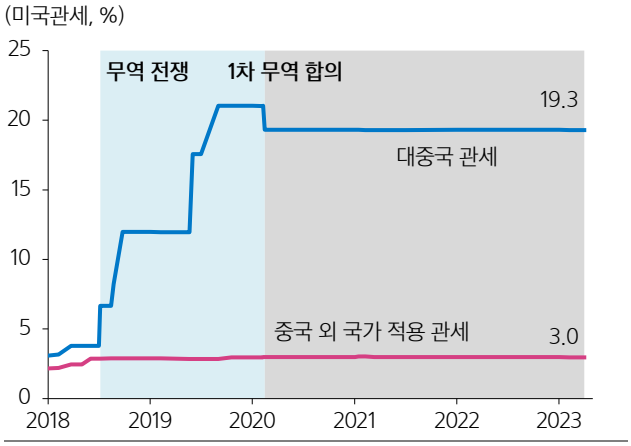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정리

미국 대통령 후보, 통상/무역 공약 비교

구분	트럼프	바이든
완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 다자간 협정 탈퇴 및 재협상 진행	-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 Chips and science act, IRA 시행, 무역 공급망 회복
진행 중	- **"미국 우선 주의 강화"** - 트럼프 상호 무역법 (고관세 국가에 대한 상호 고관세 부과) - **보편적 기본 관세: 미국 수입제품 10% 관세 부과**	- **미국 주도 진영화, 동맹국과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 - IPEF, APEP, APEC 등 주요 협력체들과의 협업 강화
	- 대중국 무역 강경책 고수, 중국의 부정행위 단속 - **"대중관세 60% 부과"** (현재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평균은 12%) - 최혜국 대우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	- 무역 정책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은 동일. -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7.5%→25% 인상 및 반덤핑 조사 개시. 멕시코 우회 루트 모니터링 강화** -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의 공급망 이동 (탈 중국,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 기존 무역협정의 이행 및 WTO분쟁 시스템 개혁 - **미국 에너지 및 농업 생산자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 **ex)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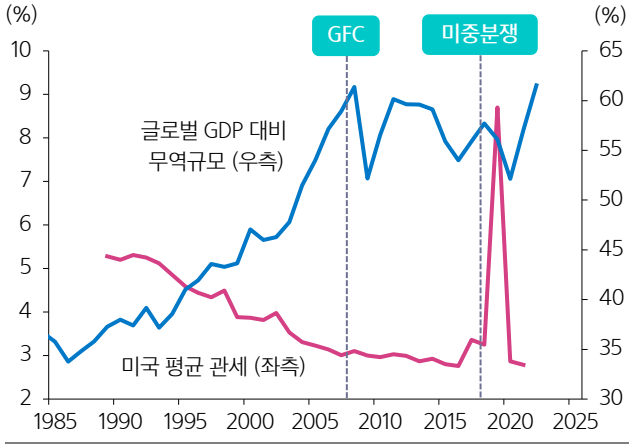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정리, 삼성증권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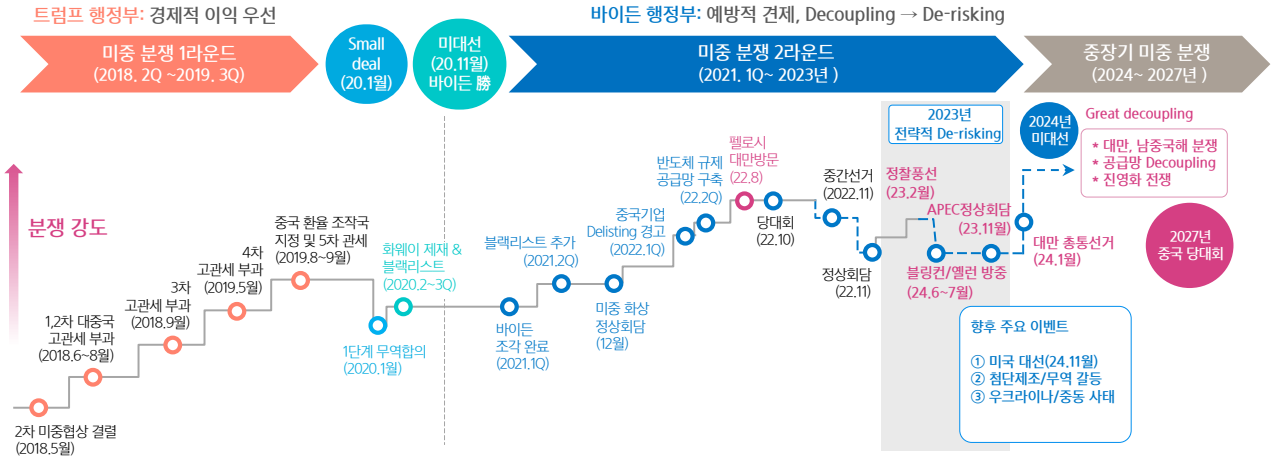
자료: PIIE, 삼성증권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 후퇴 vs. 리오프닝 리바운드



자료: 세계은행, 삼성증권

미중분쟁 경과 및 향후 전망



자료: 삼성증권 정리

현안 점검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

- 미중 분쟁의 구조화는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한 대중국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산업 분권 구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현재 무역(고관세)과 미래 무역(첨단기술) 견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 수출입 국가와 품목을 통해 관찰되는 변화는 (1) 신흥 경제 블록 강화, (2) 첨단 제조 경쟁 심화, (3) 공급 과잉 구조 확대에 있다. 중국은 08년 선진국 금융위기 이후 수출 지역 다변화를 진행하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18년)과 코로나 팬데믹('20년)은 무역 구조 재편의 촉매제가 되었다. **중국의 선진국(미국 + EU + 한국/대만/일본)향 수출 비중은 2010년 51.6%에서 지난해 41.1%로 하락한 반면에 신흥국(아세안/BRICs/중동, 아프리카, 남미) 수출 비중은 27.6%에서 41.3%로 급상승하였다.**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e) 정책과 중국의 신흥 시장 진출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의 공급 사슬과 신흥 경제 블록으로 rebalancing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반도체를 대표로 하는 첨단 제조 부문은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핵심기술 동맹(진영화)을 돌파하기 위해 확장적 대외 정책(중동/아프리카-아세안-유럽-남미)과 시장 개방/경제 협력 강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거국적인 인적 자원과 자본을 첨단 기술분야에 투입하는 자립자강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는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산업 포트폴리오로 제시했던 "차세대 스마트폰, 통신,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보여주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첨단 제조 부문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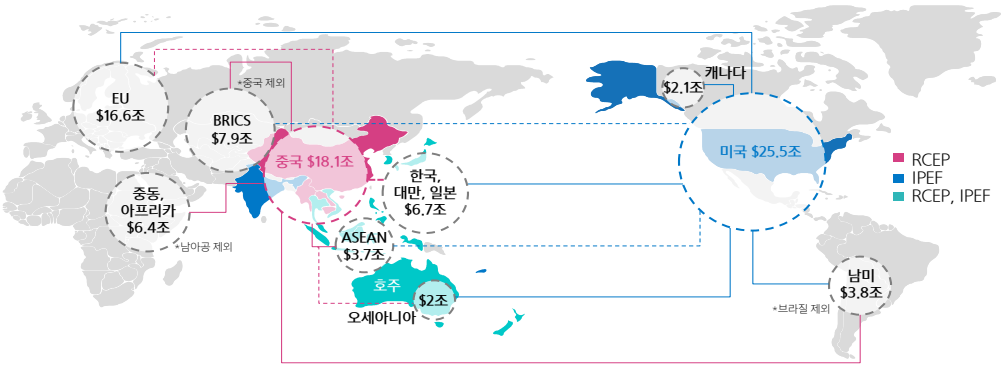
- 4월 미국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발 공급 과잉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상품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내수 수요 부진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01년 이후 확대되어 온 제조업 전반의 투자 과잉으로 인해 자동차/전기전자/석유화학/소비재 상품의 디플레이션 구조가 고착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재고 증가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구조조정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 수출 지역 다변화

수출	2000	2010	2020	2023	2024. 1~2월
미국	20.9	18.0	17.5	15.0	13.9
EU	15.3	19.7	15.2	14.9	14.8
한국+대만+일본	23.2	13.9	12.2	11.2	10.5
소합	59.5	51.6	44.8	41.1	39.2
아세안	6.9	8.8	14.9	15.9	15.7
BRICS+중동/아프리카/남미	6.9	18.8	19.8	25.4	26.9
소합	13.8	27.6	34.7	41.3	42.6
홍콩	17.9	13.8	10.6	8.2	7.7
기타	8.8	7.0	9.9	9.4	10.5

자료: CEIC, 삼성증권

글로벌 무역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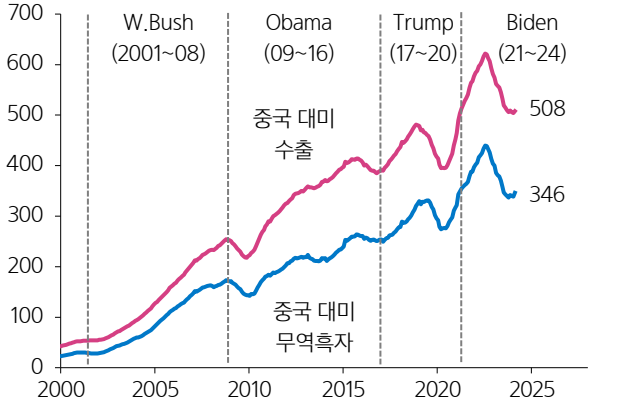


국가	GDP 규모(조 달러)			
	자국	강한 연합	약한 연합	합산
중국	18.1	21.8	25.3	65.2
미국	25.5	31.2	11.6	68.3
전세계 GDP: 약 100.2조 달러				

참고: 2022년 기준, 일부 국가 추정치
자료: 삼성증권 정리

바이든,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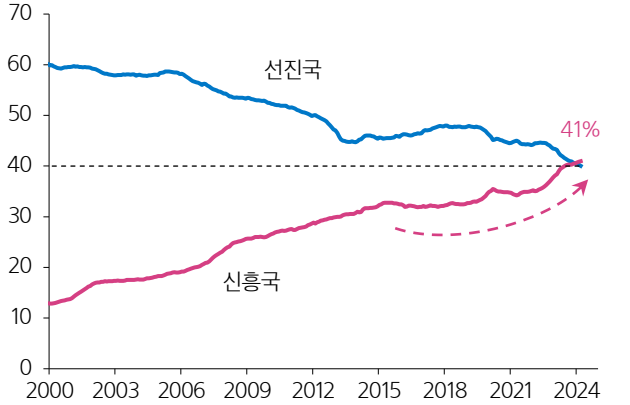
(십억달러, 12개월 누적 합계)



참고: '24년 2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신흥국, 중국 최대 수출 지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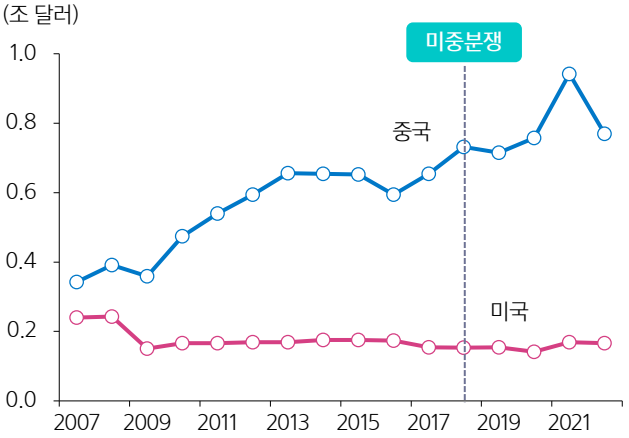
(중국의 수출 비중, 12개월 이동 합, %)



참고: '24년 2월말 기준, 자료: CEIC, 삼성증권

미중 하이테크 수출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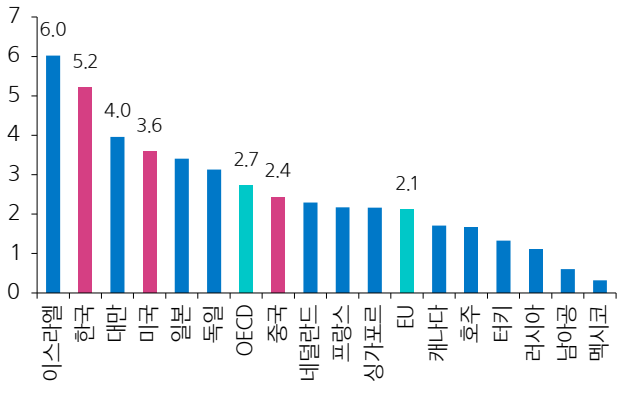
(조 달러)



참고: 2022년 말 기준, 하이테크는 OECD 분류에 의거
자료: 세계은행, 삼성증권

글로벌 주요국가 GDP 대비 R&D 비중 비교

(%, GDP 대비 비중)



참고: 2022년말 기준
자료: OECD, 삼성증권

중국 수출 상위 품목 추이

순위	수출품목		2024년 1~2월		수출금액 (백만달러)				'20-23년 연 성장률 (%)
	품목명	HS 코드	수출금액 (백만달러)	수출비중 (%)	23년	22년	21년	20년	
1	스마트폰	851713	19,060	3.61	136,962	138,838	147,111	126,173	2.8
2	컴퓨터, 노트북	847130	13,362	2.53	99,441	127,765	138,992	126,173	-7.6
3	해외 직구품	980400	10,829	2.05	61,437	35,714	32,394	21,077	42.8
4	메모리 (집적회로)	854232	9,949	1.88	56,176	70,690	76,230	56,437	-0.2
5	배터리/축전지	850760	8,725	1.65	64,900	50,926	28,441	15,946	59.7
6	전자집적 프로세스	854231	7,634	1.45	50,491	52,523	51,071	40,648	7.5
7	화물선, 화객선	890190	5,826	1.1	20,043	13,286	12,911	11,231	21.3
8	완구	950300	5,677	1.08	42,070	48,754	46,220	33,621	7.8
9	음성, 영상 재생기기	851762	5,649	1.07	43,375	52,902	51,992	48,277	-3.5
10	석유, 역청유 등	271019	5,382	1.02	38,608	36,202	23,501	19,326	25.9
11	태양광 전지 (모듈)	854143	5,329	1.01	39,624	42,376	33,537	23,887	18.4
12	전기차	870380	5,149	0.98	34,135	20,089	8,597	1,579	178.6
13	전화기/음성/영상	851779	4,764	0.9	31,486	36,029	54,610	45,204	-11.4
14	정지형 변환기	850440	4,557	0.86	34,003	34,386	27,789	20,935	17.5
15	기타 전자 집적 회로	854239	4,482	0.85	26,876	27,442	23,127	18,022	14.2
16	신발	640299	4,280	0.81	21,378	22,727	17,934	12,630	19.2
17	컴퓨터 부분품 (자기헤드 등)	847330	4,174	0.79	27,795	33,978	35,914	30,622	-3.2
18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852491	3,929	0.74	25,690	25,661	18,191	14,226	21.8
19	플라스틱 제품	392690	3,565	0.68	22,016	23,987	22,993	17,568	7.8
20	중소형 승용차	870322	3,001	0.57	19,707	12,249	7,370	3,260	82.2
	상위 20개 품목 총계		135,323	25.6	896,213	906,524	858,925	686,842	9.3
	총계 (십억달러, %)		**527.9**	**100.0**	**3,421.7**	**3,604.5**	**3,367.0**	**2,596.9**	**9.6**

자료: 한국무역협회, 삼성증권

중국 수입상위 품목 추이

순위	수입품목		2024년 1~2월		수입금액 (백만달러)				'20-23년 연 성장률 (%)
	품목명	HS 코드	수입금액 (백만달러)	수입비중 (%)	23년	22년	21년	20년	
1	원유	270900	51,289	12.73	335,534	360,622	253,495	176,192	24.0
2	철광석 및 정광	260111	26,503	6.58	129,376	123,227	174,889	113,394	4.5
3	전자집적 프로세서	854231	26,273	6.52	177,071	205,182	203,421	171,867	1.0
4	미가공 금 (ex 화폐)	710812	24,036	5.97	90,316	75,715	46,380	10,974	101.9
5	메모리 (집적회로)	854232	13,969	3.47	79,301	101,801	122,552	95,909	-6.1
6	기타 전자 집적 회로	854239	12,672	3.15	82,335	93,932	91,792	71,320	4.9
7	구리 광석 및 정광	260300	10,072	2.5	60,444	57,841	54,803	34,217	20.9
8	액화 천연가스	271111	7,915	1.96	45,125	52,356	44,543	23,435	24.4
9	대두	120190	7,439	1.85	61,421	61,234	53,592	39,547	15.8
10	유연탄	270112	5,550	1.38	34,180	23,002	19,522	13,862	35.1
11	정제 구리	740311	5,220	1.3	30,151	33,056	32,217	28,177	2.3
12	반도체 디바이스	848620	4,548	1.13	27,393	18,684	21,157	13,672	26.1
13	중형 승용차	870323	4,239	1.05	33,215	37,627	39,889	33,024	0.2
14	천연가스	271121	3,400	0.84	19,388	17,822	11,615	10,061	24.4
15	석유, 역청유 등	271019	3,176	0.79	19,117	12,039	11,273	8,358	31.8
	상위 15개 품목 총계		206,300	51.2	1,224,367	1,247,138	1,181,139	844,007	13.2
	총계 (십억달러, %)		**402.9**	**100.0**	**2,563.6**	**2,715.5**	**3,367.0**	**2,596.9**	**-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